

너무나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은 기억이 가물 가물.... 2016년을 시작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다 보니, 지난 반년 동안 참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

험난했던 성경 통독

이번 설은 중국의 시골 마을에서 6일간 성경통독을 했습니다.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유치원생은 성경을 뚫어져라 보는 동안, 정작 목표했던 청소년들은 첫날 오고 사라지거나, 와서 내내 그동안 부족했던 잠을 보충했습니다.^^ 그렇게 듣는 동안 읽는 성경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일하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 무리해 보이는 일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최근 매일 읽고 서로 체크해 주는 성경 읽기 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부흥의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듯 합니다.



해남도 여행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어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전임 사역자 앤비를 따라 처음으로 해남도를 방문했습니다.

가는 길에 심천에 살고 있는 졸업생들, 중산에 살고 있는 교사 형제 자매들을 방문 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신없이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젊은 친구들과, 다시금 이전의 신앙을 되찾고 싶어하는, 10년 이상을 직장 생활을 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요로 하는 곳은 많고, 혼자서 하기에는 참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와 디도를 필요로 했는지, 저 혼자 하려기 보다,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필요들을 채워나가게 될 시간들을 기대하고 준비해야겠습니다.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자연농업

미생물을 이용해서 땅에 생명을 붙여넣는 자연 농업의 매력 때문에 4월에는 동북의 시골 마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네시면 일어나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5시에는 새벽기도를 드리시는 두분의 집사님들과 밭을 일구고 채소씨를 뿌리고 닭을 키웠습니다. 하루 종일 근육이 아프도록 수고해도 우리가 해놓은 일은 미미해 보이고 만져주길 기다리고 있는 땅들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농사는 몇 달 해서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자명한 진리를 체험하고 돌아왔지만, 이 자연농법이 황폐해진 북한 땅을 가장 빨리 회복시킬 주님의 전략이라는 기대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디옥 결혼식

6월에는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오랜동안 이방인처럼 느끼며 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던 시아자매는 최근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과 누리고 있는 따끈따끈한 간증을 친구들과 가족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언제나 시아를 따라 교회에 즐겁게 나오고 있는 새신랑 남이가 교회를 보고 분노한 시아의 부모님을 잘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사이비집단 아니냐, 얼른 나와라 다그치시는 공산당원인 장인에게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라고 말해주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신부를 따뜻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네번째 주례를 섰습니다. ^^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ㅋㅋ 기독교식 결혼식을 너무나 궁금해하고 흥미해서 찾아온 백여명의 중국 친구들이 엄청난 열기(?) 속에서도 세시간 동안의 모든 간증과 공연에 흐트러짐 없이 집중하고 반응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결혼식은 가장 합법적이고 수용적인 전도 잔치입니다!! 내년에는 전임사역자 앤비와 아나의 결혼식이 있을 거예요. 둘 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핍박을 견뎌오고 있는 친구들이라 더욱 감동적이고 멋진 결혼식이 될거 같네요. 앤비는 해남도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아나는 고향 마을 수백명의 친척들 앞에서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표가 되시는 주님을 증거할 겁니다. 두 사람에게 너무나 멋진 지지자요 동역자인 형제들을 보내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희망함에 부는 희망의 바람~~

네달 여간의 중국 여행을 마치고 오니, 우리집 함께 사는 아가씨들이 격렬하게(?) 반가워 하네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친구들은 서로를 더 배려하고, 전보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부드럽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무튼 저는 매우 낙심되고 불평하면 지냈던 3년여간의 '불편한 동거'의 시간들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대학은 아직도 넘기 힘든 산이고, 살면서 서로가 이것 저것 부딪히는 것도 많지만, '함께 살기를 잘했어요' 라는 고백을 어느 때보다 자주 듣습니다.



한번에 정리하려니 너무 많은 감사를 꼭꼭 눌러 액기스만 짜내야 했네요..^^

링링은 결국 박사학위를 따지 못했고, 이제는 타문화로의 첫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안에 터키나 이란, 혹은 다른 나라로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러 나가게 됩니다. 복음은 힘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합해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유니스트림